

## 王陽明의 理想的 國家論 (六)

저자미상

人生의 第一意義는 價值的 生活을 爲함에 在함 것이요 生活의 價値化는 今日의 學界와 思想界에 流하는 普遍的 要件이 되얏도다. 그리고 價値는 物質과 精神의 二者에 分함 것인데 特히 精神的 道德的 價値에 至하여 價値의 最高로 하느도다. 換言하면 最高 價値의 生活이란 것은 卽 道德生活을 指한 것이라. 王陽明의 少年時代에 教師에게 向하여 『天下第一等事』를 質問하여 教師로 하여금 恐口케 하얏다. 天下第一等事란 것은 卽 聖인이 되는 것이요, 聖인이 되는 것은 道德을 完成함이요, 道德의 完成은 多言할 것도 업시 人生의 最高價値의 完成이라云치 아니치 못할지로다.

陽明의 敎에 依하면 人間이란 것은 悉皆聖인이 될 良知良能을 天으로부터 賦與하얏슴으로 此 良知와 良能을 發現하여 此를 完成하면 사람마다 聖인이 되어 道德을 完成할 것이요, 人間 第一等의 事業을 完成하여 人生 最高價値의 完成을 告한다 하얏스니, 陽明의 學問은 卽 最高價値의 學이라. 最高價値를 目的으로 하고 此를 完成하라고 全心全力을 注하여 最高價値 以外에 一物의 存在를 許치 아니하며 一念의 微動을 許치 아니하는 點에 王學을 本領이 잇도다. 從하여 價値의 生活은 陽明의 理想國家에 在하여 正히 最高의 美를 卽하느도다. 眞正한 文化生活이란 것은 價値의 生活이 아니면 不可하며 更히 最高價値의 生活을 基本으로 하지 아니하면 不可할 것이다. 卽 眞正의 文化生活은 陽明의 理想國家에 在하여 最히 卽美하며 卽히 卽卽하게 實現되느도다.

且 人間은 사람마다 幸福을 要求하나니 政治란 것은 國民의 幸福을 圖하는 事業을 謂함이라. 試問하노라. 幸福이란 그 무엇인가? 中江藤樹는 幸福을 卽하여 心의 安樂이라 說하얏도다. 果然 我心의 平和와 安樂을 捨하고 世의 何處에 幸福이 잇스리오. 眞正한 心의 安樂이란 것은 我 良心의 平和와 良心

의 安樂을 指함이니 良心의 歡喜와 滿足을 謂하얏도다. 良心에 照하야 正正堂堂하며 良心에 照하야 公明正大한 것에 天下에 無삼 畏할 것이 잇스리오. 所謂 雖千萬人이라도 吾往矣의 猛勇心은 반다시 正正堂堂흔 良心의 發動이 아니면 무엇이며, 手舞足蹈하야 不知所以하는 歡天喜地의 境涯도 □히 公明正大의 良心을 發동이 아니면 무엇이리오. 良心은 光明이로다. 天地의 平和와 安樂과 幸福은 □히 良心이란 光明의 餘光이라. 王陽明이 臨終의 際에 侍人으로써 遺言을 請함에 答하야 가로되 『我心光明更何言爲』라 하얏스니, 陽明은 此世를 去하든 刹那에 在하야도 眞히 大光明의 平和境에 在하얏도다. 世에 如斯한 平和와 如斯한 幸福은 얻을 것이로다. 卽 天下第一等의 事에 志하야 天下第一等의 業에 一生을 獻한 陽明은 實로 人間第一等의 安樂과 第一等의 幸福을 享有한 사람이로다. 世에 人生 眞正의 幸福을 求하는 자는 陽明의 理想國家에 □□치 아니하면 不可하도다.

所謂 快樂派의 倫理學者란 사람들은 快樂을 求하노라. 快樂을 失하는 徒이며 幸福을 求하다가 自身을 □하며 □□에 自墮하는 무리들이로다. 眞正한 幸福을 眞正의 價値와 一致하나니, 最高價値의 生活이 □□을 開하고 微笑할 적에 茲에 最大幸福의 光明이 輝하는 것이로다. 若夫個性의 充實, 天才의 發揮, 能力의 活動에 至하야는 陽明의 理想國家에 在하야 最히 活潑하며 自在하게 實現되나니, 各人은 皆自己獨特의 天才와 個性에 從하야 自在로 그 能力을 發揮하며 活動함에 하□식지든지 自由로 嬉할 것이요, 押塞干涉束縛 등으로 苟히 人形의 獨立과 個性의 發揮에 妨害를 加함이 잇지 못할 것이로다.